

투데이칼럼

### 누구를 위한 출장소인가? 선유도 출장소를 선유3구로 이전하라

**최** 근 군산해경 선유도 출장소 이전부지에 대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필자가 지난 9월에 제기했던 "군산해경 선유도 출장소 이전 부지를 재검토하라"를 시작으로, 10월에는 "선유도출장소 신축부지 관련 설명"이라는 제목으로 군산해경은 반박 기사를 냈으며, 급기야 13일에는 해경서장을 상대로 선유도 주민들이 "공시중지가처분" 소송까지 내는 상황에 이르렀다.

특히 주민들은 "출장소 이전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과정은 필수"라며 "군산시와 해경은 주민 공청회 등 공식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소송 배정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반해 군산해경은 출장소 신축 관련, 법률상 주민공청회가 필요한 사항은 아니며, 이미 군산시에서 신축부지 선정 시 지역주민과 협의 과정을 거쳤다.

이후 군산해경·군산시가 위치, 환경, 근무 여건(민원·사건 대응) 등의 점검을 했으며, 선



한 경 봉  
군산시의회 의원

유2구로 이전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선유도 출장소 이전은 넘치는 차량관광객으로 발생한 선유1구 진입로 병목현상을 해결하고자 결정된 사항으로, 현재 토지가 환등 행정절차는 마무리 되었고, 조만간 착공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이전이 예정된 선유 2 구는 유람선사 외에는 주민소유 선박도 거의 없으며,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해 출장소 위치로 부적합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만약 선유2구로 출장소 이전시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군산해경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 또한 출장소 이전은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정되었다. 아마 마을주민들이 출장소 이전을 그토록 반대하는 것도 이런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선유3구는 어떠한가? 선유1, 2구에 비해 남아 있는 토지가 많고, 도로도 넓어 긴급 상황 발생 시 해상치안과 경비 구난 등 바다 접근성이 매우 유리해 대체부지로 손색이 없다.

특히 선유도리 474 일원은 선유도 출장소 이전부지로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 해당부지는 전복자치도 소유

로, 실질적인 운영과 관리는 군산시가 하므로, 행정절차 진행에 특별한 장애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인근에 수협위판장이 자리잡고 있어, 각종 어업 선박이 선유1·2구에 비해 월등하게 많이 드나들고 있다.

해경의 최우선 임무가 선박안전 관리라고 치면, 선유도내 여객보다 나은 장소를 찾기는 힘들다.

군산 해경에 다시 한번 묻고 싶다. 군산 해경을 위한 출장소인가? 관공서는 주민을 위해 적합한 위치에 자리 잡아야 할 기관이다. 당연히 관공서를 이전하려면 주민 의견부터 묻는 게 순서 아닌가?

군산해경과 군산시는 더 이상 절차상 문제없음을 이유로 선유 2구로 출장소를 이전하려는 계획을 당장 중단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 적합한 선유3구로 이전하라.

### 사설

#### 대통령 지지율 24%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4%라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중화 이후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2주년 지지율로는 가장 낮은 수치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특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었다.

한국갤럽이 실시한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4%, '잘 못하고 있다'는 67%로 나타났다. 2주년 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 비율은 같았고 부정 평가 비율은 2%p 올랐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취임한지 2년 됐을 때 긍정 평가가 28%였지만 그보다도 4%p 낮은 것이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49%로 가장 높았고, 문재인·이명박 전 대통령이 뒤를 이었다.

취임 2년 차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긍정 평가가 33%로 같았다.

대통령이 왜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경제와 민생, 물가가 19%로 가장 많았다.

소통 미흡이 15%, 독단적, 일방적이다가 7%로 뒤를 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2주 전보다 1%p 올라 34%를, 더불어민주당도 30%로 1%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은 11%, 개혁신당은 5%이다.

대통령이 공수처가 수사 중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57%가 '수사 중임에도 특검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럴 필요 없다'가 29%, 의견을 밝히지 않은 비율이 14%로 나타났다.

야당은 "국민이 체감하는 지난 2년은 2년이 아닌 20년 같았다"며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강하게 비판했다. 여당은 "거대 야당의 폭주를 저지하면서 정부의 국정 동력을 높 이겠다."고 밝혔다.

#### 부안 출신 박영근(朴永根) 시인

고(故) 박영근(朴永根, 1958~2006) 시인은 전북 부안군 출생이다. 그는 대한민국 최초의 노동자 시인이다. 1980년 군제대 후 서울로 옮겨 1981년 '말과 힘' 동인지를 발간했다. 이후 구로 3공단 등지에서 노동자 생활을 했다. 1981년 '반시(反詩) 6집에서 '수유리에서' 등을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1984년 '민중문화운동협의회' 창립 회원과 '자유실천문인협의회' 재창립 회원으로 참여했다.

민중민중문화운동을 벌이다가 1985년 삶의 터를 인천으로 옮겼다.

그는 민중가요 '술아 술아 푸르른 술아' (안치환 작곡)의 원작 시인이다.

그는 노동 현장의 체험을 담은 시들을 구호 보다는 서정적으로 표현하면서 노동의 현실을 고민했다.

2006년 5월 결핵성 뇌수막염과 패혈증으로 4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민족문학작가회의는 60명 규모의 장례위원회를 구성, '시인장'으로 치르고, 경기도 안성 가족 묘지에 안장했다.

그는 1990년대 말 논술학원 교사 채용시험을 봤다. 그러나 4권의 시집을 냈고, '신동엽 창작기금'까지 탄 그에게 학원에서는 '대학 졸업장을 가져오라', '모과상에 대해 써보라'고 주문을 했다고 한다.

친구인 신현수 시인은 '박영근'이라는 시에 이렇게 썼다. "시험보고 와서/ 술을 먹는데 / 영근이는 눈물 글썽이며/ 자존심 때문에 졸업장 없다는 말은 못하고/ 문학단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안 되겠다 고 했단다/ 세상이며 제발/ 내 친구 영근이에게/ 예의를 지켜라."

2012년 9월 1일 인천시 부평구 신트리 공원에 시비가 세워졌다. 박정근 전 대전대 영문과 교수(남성고 23회)가 친형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 독자재언

#### 세계실종아동의 날... 알고계시나요?

매년 5월 25일은 '세계실종아동의 날'이다. 1983년 제정된 세계실종아동의 날로, 1979년 5월 25일 뉴욕에서 6세의 에단 파츠가 등교중 유괴·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레이건 미국 대통령에 의해 선포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부터 기념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만18세 미만 아동 실종 접수 건수는 2만 5628건이라고 한다.

전국 하루평균 약70건의 실종신고가 접수되어 처리되고 있는데 적지 않은 숫자이다. 경찰에서는 '지문 등 사진 등록제'를 실시 중이다.

지문 등 사진등록제란 아동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미리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 놓고, 실종되었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이다.

지문을 등록하면 실종 아동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을 56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경찰은 18세 미만 아동을 비롯해 장애인, 치매환자들의 지문,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미리 받아 자료를 보관한다.

사건이 발생하면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이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인계한다.

사진을 찍고, 지문을 등록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5분, 아동과 함께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 또는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보호자가 '안전드림앱'을 통해 직접 인적사항 및 사진 정보를 등록하면 된다.

경찰은 관내 어린이집 등 직접 진출하여 사진지문등록 활동과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병행하는 등 실종 아동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정태철 순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경감

###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 취임 선서하는 또 럽 베트남 신임 주석



또 럽(가운데) 베트남 신임 주석이 22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의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베트남 공안부 장관이었던 또 럽 신임 주석은 이날 취임해 보 트영 전 주석의 전여임을 시작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